



10월 신규일자리 큰 폭 증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1월 2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.1%p 상승한 7.9%를 기록한 반면 신규 일자리는 17만 1,000개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9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.3%p 하락한 7.8%를 기록하면서 10월 실업률의 소폭 상승은 예상되었으나 신규 일자리가 2/4분기 월평균 6만 7,00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짐.
-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는 동시에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구직 포기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시장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됨.
-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제조업 일자리가 13,000개 증가하고 건설부문 일자리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세를 반영하여 17,000개 증가하였으며, 시간당 임금도 전년동월대비 1.5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■ 한편, 10월 ISM 제조업 지수와 9월 공장주문이 상승하고 10월 소비자신뢰지수도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짐.

- 11월 1일 공급관리협회(ISM)는 10월 제조업지수가 전월대비 0.2 포인트 상승한 51.7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면서 ISM 제조업지수는 2012년 8월 49.6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공장주문건수도 전월대비 4.8% 증가하면서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.
- 11월 1일 컨퍼런스보드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대비 1.9 포인트 상승한 72.2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는 200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용시장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.

(Huffington Post 등, 11/2)